

전체 기본틀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혼수문화를 의식·부분적 인 온통생활을 보여줄것이 특징이 라고 할수 있다.
统一문제와 관계 송금威운 군
사문제 우선해결원칙을 고수·
▲**불가침선언** 채택 **팀스피릿트**
훈련 중지▲北韓·美國防장회담정
체결▲주한미군부 해무기 협약수동
과거 주장을 버리지 않았다.
·**南北의 통일방안에 대한 비**
판단 여전했다.
즉 고위급회담에서 **南北이 신
뢰조성하** 선물 들고나와 **불가침
선언** 체택해 회고한것과 **南北韓**

대립관계에 있는 韓國과 교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한 것처럼 생각되었으나 월례 韓中 관계는 83년 5월의 날치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이래 아시아의 새로운 국제관계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경제에 있어서는 89년 30억 달러를 넘는 무역거래가 있던 부역을 크게 확장하는 악화 과정에서 구간 관계에 대한 관심이 되어 있다.

즉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韩中 관계는 이미 굳은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北京공항에 내리면 韓國 유수 대체기업이나 韓國 광고를 끌어 곧 눈에 띠고 있으며 韓國에서 간 비즈니스들이 北京이나 上海에 많이 체류하고 있다.

이 또한 사실은 양국의 상징적인 관계가 드디어 매우 현실적인 경제관계로 변해가고 있을 때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중국의 의도로서 다음 단

北韓對南정책 부분적 융통성

金日成이 1959년에 데려온 여성 특집

「고려聯邦制」통일論 거드

南北정치인 대화통한 신뢰

를 확장한 신뢰구축을 강조한 점이다.
▲ 솔직한 대화와 각계 민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에 따라 나와의 전략은 선거국면에서 통일준비제를 활용해 논의를 확산하는 한편, 약 100여 대회를 유도하고는 의도로 충족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상의 토지에서 「단지적인」 면
적에 빠져 있다. 가령하다는 자체
법률이 「단지적인」 면적에 빠져 있다.
법률상의 토지에서 「단지적인」 면
적에 빠져 있다. 가령하다는 자체
법률이 「단지적인」 면적에 빠져 있다.
법률상의 토지에서 「단지적인」 면
적에 빠져 있다. 가령하다는 자체
법률이 「단지적인」 면적에 빠져 있다.

南韓이
獨裁정부로
대한 비
판서
이전되었다.
즉 고위급으로 일어서 남한이 신
뢰조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품가침
선포 체제를 회고한것과 南韓

나 ० 저의는 종전이 영상화이
나 정전 협정이었지
나 유통한 것
나 10 으로 金日成은 88년 신년사에
나 서南北평화의길, 89평화의길, 89
나 전쟁 협정의길, 89평화의길, 89
나 민족통일의길로 각각 주장했
나 었단다.
나 「미래통일방법 협정의」 ॥ 작
나 15 24일 최고인민회의 9

학 를
비난한 절도 면학이 없
다.

나고 있는 정치인들이 서로 담을 쓸고 앉아있던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남북간 정부가 통일이 가능하다는 자체 법제 변화다. 이와 관계로 김대중은 전례없이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는데 청와대를 떠난 민

金日成의 이전 신묘사에서는 소위 농민식 흡수통일방식을 정면으로 거부한 점과 자유왕 람을 위한 군주집권체제 체제를 저지하지 않았던 것도 두드러

경자관계는 군간

50주년 韓半島사에 엎서
회기적인 한줄였다.
설령 나아지 않아도 지난해 9월 30일의 韓蘇교수립, 12월 14일의 韓蘇국경선정, 9월 하순 가네마루(金丸信)의 諸北으로 시작된 日·北韓교관설정을 끝으로, 그리고 10월 20일의 韓中무역 대표부 설립 회의에서부터 남도 중요한 아시아의 새로운 국제 관계 형성이기도 했다. 그 사이 南北韓총리회담이 몇 차례 계속되었다는 사실도 잊을 수 없다.

中國과 北韓은 한국동란 이래 사회주의연대국으로서 서로 도와온 脣齒輔車라 할수 있을만 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88년 이후 사회주의진영이 차례로 통과되기 시작했고 특히 東歐가 이미 사회주의를 포기해 버린 상황 하에서 雜居한 天安門사건 당시 反사회주의 이념 소리를 단호히 소집함으로써 주의의 정신을 고수하고 견지하고 있다.

"한반도解氷... 中國이 變數"

계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생
각하고 있거나 아닌가 하는 점에
이다. 그 핵심으로는 경북간 중
국은 横濱 교관제(부역대표부설)
또는 韓國 영사관(領事관)
계) 가 설립되어 있는 이상, 이
를 가장 비리직한 형태로 생
각하고자 각하고자
왜냐하면 국교가 수립될 경
우 담연히 中國은 北韓과의 斷
또는 소위 「두 개의 韓國」
을 인정해야 하는 선량의 기로
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 보수적이고 완
고한 사회주의를 국대적으로 견
지하고 있는 한·北韓의 입장
을 무시하기란 불가능해 가까
것이다.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a middle-aged man with dark hair and glasses, smiling broadly. He is wearing a dark shirt and a light-colored, checkered blazer over a patterned tie. The photo has a grainy, printed quality.

나카지마 미네오 教授

▲36년 마쓰모토(松本)市출생▲60년 東京外
大 중국어과卒▲65년 국제학박사(東京大 국제
관계론)▲66년 東京外大 조교, 강사, 조교수를
거쳐 77년 교수▲69~71년 외무성특별연구원
(在홍콩)▲77~78년 호주국립대 현대중국센터
객원교수▲80년「中蘇대립과 현대」로 사회학박
사(東京大)▲현재 東京外大교수겸 同대학 해외
한국어과 교수

◇주요저서:『현대중국론』(青木서점·64년),
『北京烈風』(81년·산토리 學藝賞수상), 『중국의
비극』(89년)와 多數

아직은 「두개의 韓國」 선택 어려
초조한 北韓、日이어 臺灣에도



南北 “한마당”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逐年統一傳統音樂會에 참가한 남북 전통예술인들이 서울공연 마자마자 12월 10일 예술의殿堂에서 공연이 끝난 후 함께 손잡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고 있다.